

건강 칼럼

충치, 늦어도 신경치료로 자연치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치아우식증은 치아가 썩는 것, 즉 충치라고 불리우는 질환이다. 입 안의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당분을 분해해 만들어내는 산이 치아 표면을 부식하는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매년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치 환자가 2017년 85만2천295명에서 2021년 63만394명으로 5년간 8.9%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 충치 치료 의뢰기관을 내림한 환자 수는 9세 이하, 10대, 20대 순으로 많았고 성별비중은 남성은 47%, 여성은 52.9%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충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구강 건강을 챙겨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충치의 주된 원인은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설탕 등 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탄산음료나 산성식품 섭취로 인해 구강 pH가 낮은 경우, 타액(침)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구강이 건조한 경우, 음식을 씹지 않고 난 뒤 올바른 양치질을



이 찬희

데일리카과 원장(보존과 전문의)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치아는 피부처럼 재생,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계속 손상이 이루어지고 충치의 경우도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염부위가 확대된다.

이후 가벼운 증상의 극초기의 충치라면 별 다른 증상도 없고 진행 속도도 더디지만 점점 진행이 될수록 단계별로 증상이 달라지며 그에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충치 초기는 치아 표면인 법랑질에만 증상이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고 자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당일 하루 정도만 레진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 법랑질을 침투해 치아 내부인 상아질까지 충치가 침투했다면 음

식을 씹는 것처럼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우식이 된 부분을 제거한 뒤에 인레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상아질의 안쪽인 치아 신경까지 약화된 치수 충치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신경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외부 자극 전달여부와 상관없이 치아가 시리고 아프므로 신경치료를 하여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신경부터 치아 뿌리까지 썩은 상태로 이 상태가 되면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아 발치가 불가피해 임플란트와 같이 인공치아나 보철치료를 통해 발치한 치아를 대체하게 된다.

물론 기술이 발달해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의 90% 가까이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자연치아만큼 우

수할 순 없다.

때문에 치아가 많이 손상되기 전, 즉 초기에 발견을 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신경치료를 통해 자연치아의 보존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

평소에도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구강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 일상 속 올바른 양치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정기 치아 검진을 통해 사전에 충치를 유발할 요소가 있는지, 이미 충치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충치 치료 시에는 간단한 치료부터 고난도의 신경치료, 임플란트 등이 이루어지므로 풍부한 임상 경험 및 숙련된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과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 선택 시에도 자연 치아를 보존하면서 환자의 치아 상태와 구강 환경을 고려해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자연치아를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각 진행 단계별로 따른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진단하며,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사설

선자장 업체수 초대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 업체수의 '2023 The Simple'이 지난 6월 (사)문화연구원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특별기획 초대전은 업체수 보유자의 신작 전시였다.

조선시대 유물을 기초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칠점선과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합축선 100여 점이 소개됐다. 선자장은 지난해 개인전에서 선보인 오십축 칠점선(40cm)을 기초로 했다.

특히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작은 크기(23cm, 27cm, 30cm)로 제작했다. 업체수 선자장은 소년 시절부터 부친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업주원(嚴柱元) 선생의 문하에서 합축선을 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으로 지정됐다. 업체수 선자장의 아들인 임창석씨도 전수자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업체수 선자장의 아들인 임창석씨도 3대에 걸쳐 부채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업체수 선자장은 부채 제작에 쓰이는 칼을 제대로 가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가 재현한 부채는 대문선, 오십살 백점선, 반축선, 우각선(외각선), 어피선, 대모선, 내각선, 죽피선, 나전선, 칠점선 등이 있다.

업체수 선자장은 매년 똑같은 것을 만들면 재미없다며, 그 모습을 매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작한다.

단오 전후에 신작 전시를 여는데 매년 전시 주제가 바뀌는 만큼 부채 모습 또한 계속 달라진다.

모든 작품에는 은고리, 황칠이나 향칠 등의 고급 재료를 사용하며 자개 상자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수월한 주문이 가능하다. 업체수 선자장은 현재 전주한옥마을 내에 미선공예사와 부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기 더해가는 '전주 도서관 여행'

전주시가 운영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내 연화정 도서관 등 일원에서 도서관 여행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독립출판 북페어인 '전주책페' 축제를 맞아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했다. 독립출판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전주책페'는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소규모 출판사, 독립서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이 출판문화의 도시 전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책 축제에 직접 참여했다.

도서관 여행자들은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동네 책방의 다채로운 큐레이션을 만나 △전주시청의 '책기둥 도서관' △예술과 시민을 잇고 예술을 꽃 피우는 '서화 예술마을 도서관' △전주책페의 주

무대이자 만개한 연꽃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 '연화정 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도서관 여행자들은 서화 예술마을 도서관에서 지역 예술 작가와 함께 페브릭 북커버를 만들었다. 마지막 도서관 여행 장소인 연화정 도서관에서는 '전주책페'에 직접 참여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독립출판물을 손에 쥐고 독립출판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주책페는 개성 넘치는 전국의 독립 출판물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전주의 특별한 도서관을 도서관 여행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 기간에 축제 참여와 더불어 전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전주의 책 문화와 특별한 도서관들을 소개했다. 앞으로도 전주의 다양한 축제와 문화 자원 등을 연계해 다채로운 도서관 여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전차에 올라가 노는 베네수엘라 어린이들



5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카리카스에서 열린 제212주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마친 후 어린이들이 전차에 올라가 노는 모습이다. 베네수엘라 1811년 7월 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중국, 짐바브웨에 라뎀 가공 공장 가동



5일(현지시각) 짐바브웨 하라레 남동쪽 약 80km 떨어진 지코몬치에 있는 '프로스펙트 리튬 짐바브웨' 공장 직원들이 쌓여 있는 리튬 광석 앞을 지나고 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짐바브웨에 3억 달러 규모의 리튬 가공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